

第三十五回 國會臨時會議速記錄 第十三號 國會事務處

續紀四二九三年五月三日(火)上午十時

議事日程(第十三次會議)

- 一、第十二次會議錄通過
- 二、報告事項
- 三、議員(崔仁圭) 辭職의件

討論된案件

- 一、會議錄通過에 關한件 一面
- 二、大統領(李承晚) 辭任書處理의件 七面
- 三、政府委員任命承諾의件(交通 安戊慶) 七面
- 四、議員辭職의件(崔仁圭, 朴晚元, 張曠根, 李存華, 辛道煥, 孫道心) 七面
- 五、休會에 關한件 二〇面

(上午十時三十分開議)

○議長(郭尙勳) 成員이 되었으므로 해서 第十三次會議을 開議합니다

第十二次會議錄을 朗讀해 주세요

(議事課長 第十二次會議錄朗讀)

第十二次 會議錄 報告에 있어서 빠진 것이나 錯誤된 것이 없습니까?

(「錯誤 있어오」 하는이 있음)

錯誤있어오? 말씀하세요

(會議錄通過에 關한件)

(上午十時三十五分)

○鄭 濬議員 어제 李在鶴副議長의 辭表를 受

理하느냐 안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郭尙勳議長께서는 여기에 報告를 하시기를 運營委員會에서 滿場一致로 辭表를 도로 돌려보내기로 그렇게 決議가 되었으니 이 本會議에서 이를 어떻게 하려는 중겠느냐고 물음전에 議員席에서 저 뒷자리에서 異議가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여러분이 계셨고 또 方便으로는 辭表를 받지 아니하는데에 異議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분이 계셨고 이 鄭 濬 이 本議員도 여기에 앞자리에서는 제가 손을 번쩍들면서 辭表를 안받는데에 대해서는 나도 異議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會議錄을 보려는 異議가 없는것으로 會議錄이 되어있고 郭尙勳議長께서는 滿場一致로 辭表를 안받기로서의 議事棒을 어저께 두들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本議員은 即刻 이 자리에 올라와서 내가 異議를 말했는데 어째서 異議가 없다는것으로 決定을 했느냐한것을 郭尙勳議長에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發言할것을 希望을 했지마는 郭尙勳議長께서는 저에게 發言을 許諾치 아니하시고 民主黨議員 몇분이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저를 불렀고 참으라고 하시면서 저 아래자리까지 저를 데리고 내려갔던 것입니다
李副議長을 重大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에대해서 좀 具體的으로 말씀을 드리고저 하여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萬一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수있도록 自由가 保障이 되지 아니하고 어떤 國會議員이든지 이 자리에 올라와서 이 鄭 濬 이를 잡어 끌어내는 그런일이 있다고 한다며는 四·二六 革命을 이룩한 青年들의 피에대해서 이를 全然 無視하고저하는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생각이 되는것입니다

(場內騷然)

나는 이 나라의 國會議員의 한사람으로서의 마음대로 이 자리에서 말을 할수있는 自由와 權利를 가진 사람이올시다
지금 民主黨자리에서 나에게해서 攻駁하는 이야기들 했지만 마치 이 鄭 濬이에 대해서 그 攻駁하는 그 이야기는 革命以前에 自由黨 자리에서 野黨 國會議員이 올라와서 攻駁을하던 그 소리와 무엇이 다르냐 그 말에요 나는 이 나라의 國民이 神聖하게 投票를 해준 國會議員이올시다
나에게는 이 나라의 國民이 두어깨에질머지워준 權利가 나에게는 있습니다
이 權利를 누가 剝奪 할것인가 反獨裁의 革命을 完成한 다음에 이 國會에서는 반드시 國會의 變革이 있어야 된다는것을 저는 確信하고 또는 부

당연히 그 變革이 있은後에 國會의 議長은 民主黨 사람으로서의 國會의 議長이 되어야 하겠다

郭尙勳議員이 이 자리에 議長이 되었다고 하는 事實 나는 民主黨 여러분보다도 지지않을만큼 기뻐하는 사람이올시다

反獨裁鬪爭에 커다란 한느님이주신 贈物로서 郭尙勳議員이 議長이 되었다고 생각올해서 가슴속에 滿足과 기쁨을 느낀 사람이올시다

同時에 郭尙勳 議長에게 커다란 期待를 가진 것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앞으로의 우리 國會의 運營은 남은...우리가 解散하기前까지 그 期間까지라도 또는 앞으로 五代國會가 모여서 國會가 成立되는 그 以後일지라도 過去에 自由黨 國會議長이 自由黨國會 副議長이 이 자리에서 司會를 할적에 國會議員의 發言을 封鎖하고 國會議員의 自由를 許諾하지아니하고 남치기 司會를 하는 그런것은 絶對로 없을것이라고 希望올했고 또한 그것을 바렸고 또한 그것을 願했던 것임니다

한때 郭尙勳議長께서 이자리에 議長으로 當選이 되어가지고 司會棒을 드신지 不過二十分이 되지못해서 郭尙勳議長께서 이자리에서 議事棒을 가지고 남치기 司會를 했단말이 여기에 어찌 놀라지않을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그러므로서 郭尙勳議長께서는 어저께 李在鶴副議長의 辭任을 아니받기로 異議없이 決定되었다고 하는 이 決定을 이자리에서 即刻 取消

하시고 國會議員들 가운데 異議가 한사람이라

도 있는以上에는 이를 表決에 부쳐서 多數決 原則을 좇는 그道理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되 는 것이올시다

萬一 郭尙勳議長께서 이를 是正을 아니해준다고 하면 또는 郭尙勳議長이 所屬된 民主黨議員들이 郭尙勳議長이 行한 措置에 대해서 正當하다고 생각하는 議員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이는 國民의 이름으로써의 容恕할수없는 일일이요 國民이 커다란 失望을 할것이니 여기에 대해서 公正한 判斷이 제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것이 올시다

나는 어찌서 윤영위원회에서 滿場一致로 또는 自由黨議員總會에서 李副議長의 辭表를 받지않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事實에 대해서 어찌서 이 鄭 濬이는 혼자 辱을 먹울것을 작오 하면서 人心을 憂울것을 생각하면서 어찌서 異議가 있다고 鄭 濬이는 이야기들 하겠사리 되었던가 여기에 대해서 나로서는 확실히 李在鶴副議長은 이國會의 副議長자리에서 물러가지않고서는 이國會의 革新이 있을수가 없다 는것을 나는 確信하기 때문이올시다

그 理由는 어디에 있는나하면 李在鶴副議長은 自由黨政權의 獨裁政權의 第三者로서 그동안 權勢도 누린 사람이올시다 第一人者가 李承晚博士라고 하면 第二人者가 李起鵬氏라고 한다면 第三人者는 李在鶴氏올시다 오늘날 李承晚 大統領은 景武臺를 떠나서 梨花莊으로 집을 옮겼고 一平生을 祖國光復을 爲해서 애를 쓰던 그 어른이 執權後에 過誤를 저질렀다는 그

事實로 말미암아 莊으로 집을 옮긴 現在에 있어서 李起鵬氏는 自己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벌써 地下에서 잠들고있는 이 현실에 있어서 李在鶴副議長이 副議長자리를 떠나서는 안된다고 하는 理由는 우리國民으로서 절대로 이를 許解할수가 없는것이올시다 李在鶴氏가 副議長자리를 떠날수가 있다 그理由에 대해서 民主黨國會議員 여러분들은 國民에게 이 事實을 어찌서 仔細히 親切하게 解明을 해주지 않았읍니까?

나는 이나라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피를 흘린 事實을 이나라의 國民의 한사람으로서 또는 모든 國民들이 가슴하르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가운데에서 李康石君 李康旭君도 또한 젊은 사람으로서 또한 죽어서 망수으로... (무슨 소리들 해하는이 있음)

지금 들어가 잠자고 있습니다 李康石이와 李康旭君으로 말하면 그사람이 自由黨員이기 때문에 그사람이 죽었는가 그사람이 權力을 누렸기때문에 그 두 青年이 죽었던가? 나는 李康石이라고 하는 그青年과 李康旭이라고 하는 그 두青年이 죽었다고 하는 事實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問題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임니다

...

...

...

그 두 青年이 주는 것은 自由黨政權이 잘못
했기 때문에 自由黨指導者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青年은 自己아 버지를 怨望했것지요 自己아
머니를 怨望했것지요 同時에 自由黨指導者
를 怨望을 하고 自己自身은 아무 過誤가
없지만 그러나 自己아 버지와 어머니가 저지른
過誤와 또는 自由黨政權의 모든 指導者들이
잘못했다는 事實앞에 이 世上을 살아서 무
엇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自決을 했다고 이와같이 불수가 있는것이올
시다

하므로 이 事實에 비추어서 李在鶴 副議長은
當然히 副議長자리를 떠나도록 해야되었읍니다
副議長자리를 떠나야 될 理由가 李在鶴副議長
과 더불어 같이 지내던 國會議員가운데에도
罪가 크든 적은 하여튼 이번 事態가 일어난
다음에 자리를 물러간 사람이 있고 그勢力을
잃어버리게 된 사람이 많이 있게 된 이 마
당에 李在鶴副議長은 當然히 이자리를 물러나
가야 되었읍니다

李在鶴副議長은 四·二六革命이 일어난다음에
또한 커다란 過誤를 저지른 사람이올시다
그것은 무엇이나 하려는 지난 二十八日 李大統領
領... 李承晚博士께서 景武臺를 떠날적에 우리
國會議員들은 그가 걸어서 梨花莊으로 간다고
하는 그말을 듣고 그분이 이미 大統領자리를
물러갔지만 그분이 걸어가서는 안되었다고 생
각을 해서 民主黨의 幹部들과 無所屬의 몇몇
분과 또는 自由黨 몇몇분들과 景武臺에 가서 걸
어가서는 안되었다고 하는 이런 뜻을 우리가

傳達한 事實이 있었더렸읍니다

그當時에 李在鶴氏로 말씀하셔는 景武臺에 앉
어서 우리 野黨側人士들에게 무슨 말을 했느
나 하려는 지금 바깥에서는 「메모」가 일어났
다 바깥에서는 漢陽工科大學生들이 李承晚博士
의 下野를 反對하는 反對「메모」를 일으켜서
景武臺를 向해서 지금 오고있는 中이다 또 漢
陽工科大學生뿐만 아니라 서울市內 學生들이 李
承晚博士의 下野를 反對하는 「메모」를 일으킬
려고 지금 騷起를 하고있는 形便에 있다
그러므로 四·二六事態가 있는 以後에 國民들
의 생각은 달라져서 李承晚博士의 下野를 反
對하는 「메모」가 일어나고 李承晚博士의 下
野를 主張하는 「메모」가 일어나고 이와같이
함으로써 一大混亂이 일어난것이다 이 混亂을
어떻게 할것이나? 이런말을 하면서 우리 野
黨側人士에 對해서 영웅한 소리를 해가지고
張澤相議員이나 曹在干議員이나 저는 李在鶴氏
의 그말에 對해서 어떻게 된 일인가 마음속
에 바깥의 事態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변
걱정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더렸읍
니다

그러면 李在鶴氏로 말씀하면 그자리에서 우리
를 向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가지로
한말을 되하고 한말을 되하고 任哲鎬氏가 옆
에 앉어 있어가지고 亦是 그와같은 얘기를
하고 宋堯讓戒嚴司令官도 그와같은 事態가 일
어날때에는 우리 軍部에서는 어떻게 할수없다
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할때에 우리들은

마음속에 걱정하는 그런 생각이 없지않아 있
었더렸읍니다
그래서 李在鶴副議長보고 「여보 當身께서 事實
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對해서 收拾方案
을 講究한 必要가 있으니 野黨人士들과 議
論한 必要가 있지않겠소?」 하는 얘기를 했더
니 李在鶴副議長은 그대에 意氣堂堂하게 「議論
은 무슨 議論이야」 國會에서 決定한것이 잘못
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말을 했읍니다
그대에 張澤相議員이 李在鶴氏를 向해서 그러
면 當身은 바깥에서 事態가 일어난 이것을
하나의 機會로 해서 이것을 挽回를 해 불러
고하느냐 이와같은 얘기를 했고 本議員도 李
在鶴氏를 向해서 「여보 自由黨 國會議員들과
野黨人士들이 다모인 자리에서 滿場一致로
決定을... 下野決定을 했고 當身손으로 議事棒
을 푸드린 以上에 當身께서 지금 무엇이라고
무슨 말을하는것이요? 이와같이 얘기를 하고
서 얼마후에 景武臺를 나와서 中央廳앞을 지
날전에는 「메모」隊커녕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제가 생각한것은 무엇이나 하면 우리는
景武臺에 들어가서 한 時間 동안 있는 동안
에 바깥에서 「메모」가 일어났는지 무엇이 일
어났는지하는 그런 말을 듣고서 바깥 世上
形便이 어떻게 될것을 알지를 못해가지고서
面 걱정도하고 이와같이 했었는데 李承晚博
士는 그 景武臺속에 十二年동안 들어 간
혀있어가지고 이나라의 政治를 한다고 그
분이 하는가운데 바깥 世上이 이렇소 저

령소 이령소 저령소하고 周圍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로 애기도하고 여러가지 모양으로 애기를 했으니 李承晚博士가 景武臺속에 十二年 동안 올바른 政治를 할수가 없었지않지 않았겠는가 그와같은 생각까지도 한일이 있었더랬읍니다

李在鶴副議長은 요 일마전에 이 本議員을 向해서 崔仁圭와 韓熙錫에게 대한 애기를 한것은 報復의인 애기라고 하는 뜻으로 애기를 하면 報復의인 行爲로 나오면 안된다고 하는 애기 한일이 있었더랬읍니다.

여러분! 本議員이 이 자리에 나와서 崔仁圭와 韓熙錫 두분에 대해서 애기를 한것이 報復의인 뜻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애기를 한것입니까? 本議員은 그 個人을 미워하는 생각은 없읍니다

그러나 그가 저저른 罪惡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나라 國民의 主權을 剝奪한 그 罪惡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를 處斷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것을 저는 부르짖었읍니다 그와같은 부르짖음에 대해서 李在鶴氏는 報復의인 行爲인것처럼 解釋을 하고 애기를 했다고 하면 분명코 李在鶴氏의 思考方式이나 또

는 李在鶴氏와 같은 思考方式을 갖는 사람들이 이나라에 많이있게서 되면 이나라의 革命課業은 절대로 成功을 못할것이올시다 절대로 이나라에 그 腐敗한 많은勢力을 물리치지도록 할수가 없을것입니다

그러며는 腐敗한 勢力을 물리치지 못할하고 호 지부지 호지부지 나간다고 하면 불쌍하기는 이

나라의 國民들이 불쌍해 질것입니다 이 나라의 國民들은 過去나 現在나 앞으로나 마찬가지로 그냥 腐敗한 사람들의 손에서 또 苦生을 하게시리될 가능성이 없지않다고 생각할것에 나는 國會議員 여러분에게 呼訴하고싶은것은 四·二六革命 그 課業에 대해서 헛된데에 들

아가지않게 하기위해서는 國會에서 一大革新課業을 우리는 遂行해야되겠다고 생각하는것이올시다 自由黨議員가운데에도 良心的인 議員이 있으며 革新을 부르짖는 議員들이 있읍니다 또 過去에 빛나는 鬪爭을 해온 民主黨議員과 또는 無所屬議員 또는 自由黨의 良心的인 많은 議員들과 힘을 합쳐서 앞으로의 남어있는 모든 課業을 迅速하게 果敢하게 良心的으로 우리가

해 나가는데있어서 이나라 國民들이 五百年동안 過去三十六年동안 過去十二年동안 苦生을 해오던 그것이 인제는 다 물러가고 自由스럽게 安定된가운데 살수가 있어질것이니 斷然코 李在鶴副議長의 辭表挽留문제는 本議員은 이런

뜻에서 反對를 하는것이요 民主黨議員 여러분께서 다 雅量을 베푸신다고하면 李在鶴副議長을 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同時에 自由黨 議員가운데 良心的인 사람 때가 묻지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자리에서 나와서 副議長자리

를 맡아가지고 民主黨側과 힘을합쳐서 良心的으로 일을 해나갈수있도록 이와같이 해나간다는것은 智慧로운 判斷이겠지마는 李副議長을 그대로 둔다고하는데에 對해서는 絶對로 저는 反對를 하는것이올시다

그러나 國會議員 여러분께서 大多數가 李副議

長辭表를 그대로 두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決定이 내릴 경우에는 本議員은 多數決原則에 依해서 順從을 할것이요 따라갈 用意은 얼마든지 있는것이올시다 그러나 多數決原則에 依해서 決定을 짓지를 아니하고 國會本會議에서 異議가 있다고하는 애기를하는 國會議員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滿場一致로 通過되었다고해서 議事棒을 두들기고 이것을 그대로 넘어갈려고 하는일은 오늘날을 위해서 뿐만아니라 이

나라의 民主殿堂인 國會運營을 위해서 斷然코 이것은 그대로 默過할수가 없는事實이라고 本議員은 생각을 하기때문에 저는 이主張을 하

게서리 된것이올시다 제 發言가운데에 郭議長에 對해서 좀 지나친말씀이 있었다고 한다면 容恕를 하십시오 저의 發言가운데에 民主黨 議員 여러분에게 좀 지나친 말씀을 제가 드렸다고한다면 容恕를 하십시오 나는 民主黨 여러분이나 郭尙勳議長에 對해서 全幅的인 尊敬을 기울이는 사람이올시다 이나라의 民主主義를 위해서 鬪爭한 사람들이 民主黨議員 여러

분이기때문에 李承晚政府를 물러나도록이 힘쓰는것이 民主黨 여러분들이기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對해서 他意없는 全幅的인 尊敬과 여러분에對한 協助를 하기爲해서 이 자리에서 郭尙勳議長께서 選舉:不正選舉無效宣言을 할적에도 제가 無所屬에 있는 의원은몸이지만 여러

분과 行動을 같이했으며 四月五日 籠城鬪爭과 四月六日 「데모」鬪爭에 있어서도 여러분과 저는 行動을 같이했으며 오늘날까지 여러분과 같이 더

블어 行動을 같이해온 사람이올시다 이와같이 행

動을 같이 해온 제가 여러분에對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에對해서 敵意를 가지고 애기한 다거나 여러분이 다 하고저하는 일을 妨害하기爲해서 애기하는것은 絕對로 아닌것이올시다 참으로 제 말이 너무 길어져서 大端히 罪陳합니다 以上으로써 저의 말씀을 그치고저 하니 郭尙勳議長께서는 이 問題에對해서 善處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자리를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議長(郭尙勳) 조용해주세요 이제 鄭 濬議員이 이 議長에對한 不平과 行使에對한 여러가지 不當性을 말씀했습니다 옳은 애기올시다 그러나 여러분께 내가 말씀드리고싶은것은...

(場內騷然)

조용해주세요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말씀드리고싶은것은... 曹議員 좀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恒常 이렇습니다 이자리와 여러분 자리가 차이가 떠있고 또는 무슨問題가 있을때에 이 司會者로서 여러분의 動態를 잘 살피고 점을 말이라도 잘 알아듣도록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너무 혼란해서 생소하기때문에 말이 잘 못 알아듣는 形便이 많습니다 나는 過去에 이 議長席의 經驗도 있는지라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國會議員으로서 한사람이 異議가 있더라도 그 意思를 尊重해가지고 그 提議한 事態를 決定할적에 表決에 부치는것이 當然한 일이올시다 그런데 어찌 李在鶴副議長의 事件으로 말하며는 正式으로 辭表 變일도 어찌 나은것이 없었습니까 그러나

運營委員會에서 이러한 事實이 없었다는것을 여러분 들에게 通告하고 亦是 이 사람의 裁斷으로서 同意를 얻은것뿐 입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鄭 濬議員이 그렇게 말씀 했지만 내가 어찌 宣布 한것을 지금 이자리에서 取消 할수는 없읍니다 따라서 사람이 鬼神이 아닌以上에는 여러분이 너무 떠들석 하는 가운데 異議있소 라는 말을 못 알아 들었읍니다 그러나 異議없소 하는 소리가 너무 많은 가운데 異議있소 하고 파문하는지는 몰라도 나는 그것을 잘 못 들었읍니다 잘 못 들은것을 험하고 여러분이 不信任을 하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自由입니다 나는 鄭 濬議員이 그것을 諒解 해주시고 또 하나 내가 말씀 드릴것은 이 瞬間은 여러분의 할 課業이 너무나 至重하고 十二年 동안 살이고 살렸던 우리의 政治... 民主政治 基礎를 오늘에 와서 成功 할려고 하는 이 마당이올시다 그러므로 나는 어찌도 釜山서 혹은 大邱서 現 國會議員은 改憲할 資格이 없기때문에 다 물러서라고 하는것은 當然한 鬪爭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지만 十二年 동안 國會議員노릇을 나는 하면서 經驗 한바에 의지하면 나는 平生 信條가 內閣責任制 改憲을...정말 國民의 權利를 尊重하고 國民意思대로 政權이 交替 되고 國民앞에 完全히 責任지는 政治 體制의 憲法이 고쳐 진다고 하던 나는 내 平生에 國會議員 되었던 國民앞에 義務를 完遂 했다고 생각 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동안 過去の 自由黨이나 혹은 民主黨이나 無所屬이나 간에 國民앞에 至

重한 罪를 지었다 손치더라도 國民 意思에 따라서 아까 鄭 濬議員은 젊은이의 罪를 우리가 헛되이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말씀 至當한 말씀 입니다 우리는 다만 가지고 헛되이 해서는 안되겠다는것 이것만 아니라 우리가 實踐에 옮겨서 또 피의 代價를 우리는 支拂할 義務가 있기때문에 좋거나 그러거나 國會에서는 多數決 以上에는 아무것도 決定 못 하는것이 올시다 그러므로 약간 우리가 野黨으로서 議事堂에 同志 自由黨 여러분에게 不滿이 있다 國民이 不滿이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이 至重한 課業을 完遂하기 위해서는 서로 胸襟을 터놓고 過去를 잊어버리고 이자리에서 國民이 願하는 內閣責任制로 一路邁進하려고 우리는 극히 希望했기때문에 약간의 過誤와 무엇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끌어 안고 다갈은 우리의 課業을 完遂하는데 도움이 되자고 하는것이올시다 鄭 濬議員께 다시 말씀드리거나 대단히 옳은 말씀이고 또 옳은 理論이고 옳은 解釋이 올시다 그러나 내가 이제 말씀 한것과 마찬가지로 이 司會者가 아무리 한말하는 議長職에 나왔읍니다 나는 너무나 서물려서 귀가 어두워서 異議있소 소리를 못들었으니 그點을 널리 諒解 해주시고 議事進行을 鄭 濬議員이發言한것을 議事錄에 明記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잘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諒解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會소〕 하는이 있음

○曹冰珪議員(의석에서) 議長! 議長!

○議長(郭尙勳) 조금계세요

曹冰珪議員 이문제의 대해서... 이문제의 대해서發言이라고 하면 議長職權으로 發言을 못하겠습니다

○曹冰珪議員(의석에서) 議長! 議長 發言權주세

○議長(郭尙勳)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場內騷然〕

앉으세요 曹議員 容恕하시고 앉으세요 우리 큰 일을 위해서 다 참읍시다

○曹冰珪議員(의석에서) 議長! 發言權주세요

○議長(郭尙勳) 앉으세요 앉으세요 發言權 못드려요

〔場內騷然〕

앉으세요 發言權 못읍니다 議長 不信任 내세요 發言權 못드리겠어요 다음은 報告事項이을시다

報告하세요...

이미 諒解였으니 이 會議錄 通過에 異議 없으시지요? 會議錄 通過에 異議 없으시지요?

〔일소〕하는이 있음

그러면 會議錄 通過합니다

다음報告하세요 事務處報告가 있습니다

○議事局長(李錫振)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四月二十七日字로 政府로부터 大統領의 辭任書를 送付해 왔읍니다

辭任書의 內容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단기四二九三년四月二十七日

수석국무위원

민원의장 귀하

사임서 송부에 관한건

수석의견 일치와같이 송부합니다

나 리승만은 국회의 결의를 존중하여 대통령의 직을 사임하고 물러나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나의 여성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바치고저 하는바이다

단기四二九三년四月二十七日

리 승 만

五月二日字로 政府로부터 政府委員 任免에 관한件이 提出되었읍니다

前 交通部次官 宋元永을 政府委員으로부터 解任하는 동시에 交通部次官 安戊慶을 政府委員에 任命했다는 것임이다

단기四二九三년五月二日

대통령권한대행국무위원 허 정

민원의장 귀하

정부위원임면에 관한건

교통부차관 임면에 수반하여 전교통부차관 송 인영(宋元永)을 정부위원으로부터 해임하는 동시에 다음과같이 정부위원을 임명코저 하오니 승

락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기

교통부차관 (安 戊 慶)

정부위원에 임함

五月二日字로 自由黨으로부터 交渉團體代表議員變更通知가 있습니다

檀紀四二九三年五月二日

自由黨議員總會

民議院議長 貴下

交渉團體代表議員變更通知의件

本黨의 代表議員을 檀紀四二九三年 五月二日 左記와 如히 變更 하였음을 通知합니다

記

舊代表 鄭 文 欽

新代表 趙 瓊 奎

以上

五月二日 및 五月三日字로 民主黨院內 總務 金義澤議員으로부터 常任委員會 委員과 特別委員會委員 變更通知가 있습니다

檀紀四二九三年五月三日

民主黨 議員總會

總務 金 義 澤

民議院議長 貴下

常任委員會 및 特別委員會委員更迭報告의件

本交渉團體所屬 首題의 委員 左記와如히 變更 하였으므로 茲에 報告함

記

一、常任委員

文教委員 兼 運營委員 閔壯植議員의 運營委員 兼任을 解除하고 農林委員 洪翼杓議員을 運

營委員兼任으로

二、特別委員會(憲法起草委員會)

嚴祥燮議員을

韓根祖議員으로變更함

檀紀四二九三年五月二日

民主黨議員總會

總務 金義澤

民議院議長 賁下

國會時局對策委員會委員

交替報告의件

本交涉團體 所屬 首題議員을 左記와如히 交替

하였기로 茲에報告함

記

嚴詳變 鄭憲柱議員을 解任하고 柳鴻 劉聖 權議員으로 交替함

五月二日字로 運營委員會 委員長 李成株議員의

로부터 昨日 本會議決議에 依해서 民議院議員

選舉法改正案起草特別委員會 委員 構成方案을 審

議한 結果 自由黨 四人 民主黨 四人 無所屬

一人 計 九人으로서 同委員會를 構成하기로

하였다는 報告가 있습니다

檀紀四二九三年五月三日

運營委員會

委員長 李成株

民議院議長 郭尙勳 賁下

民議院議員選舉法改正案起草委員會構成에關한件

標記의 件에 關하여 民議院議員選舉法을 改正

하기의한여 左記 比率로 同 起草委員會를 構

成키로 決議되었압기 茲以 報告하나이다

記

自由黨 四人

民主黨 四人
無所屬 一人
計 九人

五月三日字로 金善太議員外 十三人으로서 非 違檢察幹部罷免之件에 關한 緊急動議가 提出되 었읍니다

非違檢察幹部罷免之件에 關한 緊急動議

主文

李承晚政府의 強壓下에 正當한 職務遂行을

하지못하던 檢察이 高貴한 四、一九 四、二

六等 學生革命으로 말미암아 檢察本然의 位

置에 還元하녀 歷史的인 三、一五 不正選舉

의 元兇들을 索出處斷하고 이版局에 同不正

選舉 強行의 元兇絛에 屬한 大檢察廳 吳制

道 同 金潤澤等이 아직도 번거하야 重大한

搜查事務에 妨害를 하고있으니 政府는 卽刻

此等 被疑者等言 罷免하고 立件搜查할것

理由 口頭說明

提案者 金善太

李炳夏 趙漢栢 鄭憲柱

曹逸煥 劉聖權 韓根祖

田泳奭 崔熙松 金學俊

金正煥 趙一載 鄭在浣

洪翼杓

報告는 以上입니다

一(大統領辭任書處理의件)一

(上午十一時十五分)

○議長(郭尙勳) 이제 事務當局이 報告한 가은

에대 大統領: 李大統領 辭任에 대한 報告書 를 朗讀했읍니다

이미 報告한바와같이 第三代 大統領을 辭職함과 第四代 大統領 當選을 辭退한것을 宣布합니다

一(政府委員任命承諾의件)一

(上午十一時十六分)

○議長(郭尙勳) 그리고 政府로부터 交通部次官 에 安戊慶氏를 任命했다는 報告가 있습니다

承認에 異議없으시지요? 異議없읍니까?

(「異議없소」 하는이 있음)

네: 그러면 이것을 承諾한것으로: 通過합니다

一(議員辭職의件)一

(上午十一時十七分)

○議長(郭尙勳) 그리고 그다음에는議事日程 第三項 崔仁圭議員 辭職의 件이올시다

이點에 있어서는 먼저 우리 國會 對策委員會

에서 여담사람의 辭職勸告決議等을 내서 國會

로서 通過를 보았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運營委員會에서 여러가지로 論

難이 있었읍니다

이 表決에 있어서 妥當하냐 안하냐 辭表를내

라고 하는 國會의 決議는 辭表를 받기만 하

면 그만이라는 이런 理論과 또 하나는 前者

에 있어서 表決을 했으니 亦是 表決을 해야

되겠다는 理論과 또 人事 문제인지라 이것을

表決을 한다고하면 한대 묵어서 한꺼번에 表

決한다는것은 多少 矛盾이 있지않느냐 이런等

등의 理論이 있어서 論理一致를 못보고 그대

도 人事문제이니만큼 하나 하나 表決을 해

야 되겠다는 이런 理論이 强하게 나왔읍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議論 끝에 于先 拘禁問題도 있고 여러가지 錯雜한 문제로 오늘 이것을 決定하지않아서는 어려운 事情이 있다고 해서 崔仁主議員만을 먼저 오늘 即刻 表決에 부치자는것이 오늘 아침 運務委員會 決定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即刻 上程해서 表決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表決의 準備를 해주시오

그러면 崔仁主議員辭職에 대한 表決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監票委員會 議長이 指名해도 좋겠습니까?

(「중소」하는이 있음)

네 그러면 異議없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監票委員會... 趙沈熙議員오셨습니까? 林祐永議員 오셨습니까? 李敏雨議員 高龍禧議員 이분이 좀 手苦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投票을 잠그고 投票을 시작하겠습니다 宣布합니다

(上午十一時二十二分投票開始)
(上午十一時四十分投票完了)

投票 안한분이 있으면 지금 投票해주세요
投票안한분 投票하세요!
이제는 投票을 단졌는데 投票안한이 없으시지요?

그러면 投票을 단습니다 그리고 開票를 시작하겠습니다

投票한 名牌數가 百六十三名입니다
자리 整頓해주세요

投票結果를 報告하겠습니다

投票總數가 百六十三 名牌와 맞습니다
可에 百四十八 否에 四 無效에 七 棄權에 四
그래서 百四十八票가 半數以上에 達한 넘으므로 辭表를 許可하는 同時에 除籍된것을 宣布합니다

(「議長」하는이 있음)

劉沃祐議員...무엇입니까 議事日程...

○劉沃祐議員 지금 議事日程 第三項 崔仁主議員의 辭表受理는 決定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며칠전에 이번 三·一五選舉에 있어서 責任이 있다고 어떻게 우리가 생각이 되어진 여덟議員에 대해서 똑같이 勸告를 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들리는바에依한다치면 運務委員會에서 本人들의 辭表가 全部 나왔음에도不稱하고 이것을 個別的으로 投票을한것이냐 또는一括投票을 한것이냐? 이런問題가 아직 決定이되지않아서 崔仁主議員의 지금 辭表만 오늘 處理하도록 이렇게 나온것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本議員이 말씀하고자 하는것은 여덟議員에對해서는 우리가 이미 院議로써 滿場一致로 이분들은 辭表를 우리가 勸告를 했습니까
그러면 勸告를 한 以上에는 本人들이 辭表를 내어왔으면 應當 그것으로써 處理가 되어지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個別的으로 投票한다든지一括로 投票한다든지 投票의 形式을 取해가지고 우리가 接受한것이었다 이렇게 생각을하는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들은바에依한다치면 여기에 있어서 여러가지 事情이 있는것같습니다 勿論 自由黨에 계신 여러분들 마음 아프실것입니다

또 그 處地에 대해서도 理解를합니다
그러면 일이 있을수록 우리가 警戒해야 할것은 이번이 事態는 우리가 一舉一動으로 우리가 輕率히 해서는 안된다는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어딘 學生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이 나라를 바로 잡겨 위해서 革命을 통해서 이번이 이러한 事實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있어 個人間的 어떠한 情實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있어 어찌한 여러가지 私事로운 생각을 가지고 이런 文辭를 處理하다가는 우리가 國民 앞에 指彈을 받을 그런 憂慮도 있는것입니다
내가 들은바에 의한다치면 지금 사람...議員 中에 某議員같은 사람은 벌써 自由黨世界에서 莫大한 資金을 蓄積한 그러한 資金을 放出해 가지고 自己의 救命運動을 始作을해가지고 그 래가지고 個別 不信任을 通해서 自己의 辭表를 否決시킬려는 그런 方向으로 움직이고 있 다는 그런 情報도 듣고 있습니다
萬若에 이러한것이 우리 決議를 通해서 나타 난다고 그러면 참말로 그때야말로 우리 二百三十名 全體가 그 責任을 질것입니다
이런것도 憂慮였고 또 法理論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院議로써 作定을 해서 우리가 辭退를 勸告한 以上에는 本人들이 거기에

應해가지고 辭表를 내은 以上에는 應當이것은 自動的으로 受理가 되어야 되지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문제에 대해서 議長께서 그렇게 處理를 해주시든지 萬若에 議長이 그렇 게 處理를 못한신다고 할때에는 院議로써 우리가 다시 再確認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 각에서 意見 만큼드리고 萬一에 必要하다고 치면 議事日程을 우리가 變更을 해가지고 正 式으로 이 문제를 다시 여러분과 議論을 하 는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음 니다

○議長(郭尙勳) 이문제에 있어서 發言請求가 있 습니다

桂玠淳議員...

○桂玠淳議員 四·一九革命事態에 대한事後 收 拾에 대해서 官民 與野를 莫論하고 國家의 將來를 爲해서 慎重한 態度로써 우리가 모든 것을 處理해나가야될 이러한 緊急한 事態에 우리가 빠져있는것입니다 四月十九日날 與黨 그래서 우리 國會에서는 時局收拾 對策委員會를 野黨 協助 機關으로써 時局收拾 對策委員會를 組織했던것은 事實입니다 그리해서 우리 野黨과 與黨 同數로써 오늘날 까지 이 모든 緊急 事態에 대해서 先後 對策 을 講究한것이 事實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收拾對策委員會를 組織할때 는 그 限界가 오직 戒嚴令이 敵의 包圍下에 있지않으니까 이戒嚴發布自體가 無效로다! 말 리이 戒嚴令을 撤廢해서 平穩한 狀態로 돌 아가자! 이것을 軍當局에 交涉하라 이것이

첫째 任務요 둘째로써 多數한 사람이 負傷을 當해서 病院에 入院해있고 呻吟하는 中이니까 그 醫療 對策 厚生對策을 關係當局과 交涉을 해서 빨리 해라 이것이 둘째 目的이있었음 니다 또 셋째는 暴惡한 警察官이 이 善良한 學生 運動者에 대해서 報復으로써 拷問하지 않겠는 냐? 이 拷問을 未然에 防止하자!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國防委員 一部와 또 保社分科 委員 一部와 또 內務委員會委員 一部를 여기 에 넣어가지고서 오늘날까지 對策을 講究해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四月二六日 事態가 突發해가지고서 單 純한 人權擁護 單純한 戒嚴令 廢止 單純한 救護 이 理想을 떠나서 政策的으로 李承晚大 統領의 下野를 促求하고 또한 三·一五不法選 舉를 無效化 함으로써 民心을 收拾할 수있는 이러한 段階에 이르렀기때문에 우리는 그 當 時에 事實上 自由黨 民主黨을 다 超越했던것 입니다...

早速히 해야 되겠다 이런 關係로 그當時에 우리는 모든 法的 手續 그 節次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輕視했던것은 事實입니다 當場 이壇上에서 첫째로 「大統領이 即時 「下野할것」 들레로서는 「三、一五 選舉를 無効로 하고 다 시 選舉할것」이러한 政策문제... 政策문제 가 지 이 收拾對策委員會가 限界를 넘어서 決定 했읍니다 그러기때문에 우리는 그 當時에 群 衆을 鎮壓하고... 鎮壓한다면 語弊가 있지만

民心을 收拾하기위해서 이것을 無條件 通過 했던것은 事實입니다 그러나 그後에 所謂 自由黨의 不法選舉에 直 接 關係한 國會議員 몇분의 辭退勸告案 또는 副議長辭退受理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 리가 좀더 신중히 해야 될줄 믿읍니다 果然 그當事者가 이 不法選舉에 어느程度 깊은 干 계가 있느냐? 다른 議員들과 그 「바란스」 公平관계 이런것을 생각해야될줄 믿읍니다 그 러함에도 不拘하고 오늘 가만히 불것같으면 이 收拾對策委員會가 自己 權限외의 일을 해 가지고서 所謂 與野協商이라는 名稱下에 모든 것을 決定해가지고 이 國會에 나와서 그것을 滿場一致로 우리의 通過를 强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아직도 革命的 情勢는 復舊 되지않고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 與野 國會議員들은 다같이 다지금 慎重 을 期하고 公平을 기하고 또한 모든 이것이 果然 納得할수있는 그러한 情實관계를 떠나서 嚴重 公平하게 해야만 우리는 이 외에 報答할 수있고 또한 靑年들에 대해서 그 正氣를 을 바로 잡을수있으리라고 믿는바입니다

여기에 李在鶴副議長의 辭表문제에 關係해서 대 아가 말씀이 계셨읍니다 솔직히 말씀해서 대 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그날 民主黨議員總會때 에는 李承晚博士가 徒步로 걸어간다 그러니 民主黨議員들을 代表 해가지고서 國會에... 가 서 慰問을 해라 하기때문에 그 議員總會에 參席을 못했었읍니다 또 어제로 論한다고 할

저라도 春川에 事件後에 처음 가서 그民心을 收拾하고 또 國民의 輿論을 듣기 위해서 갔다가 어제밤에 왔읍니다. 진작 江原道에 가보니까 서울서 생각하는 것과 判異하게 다릅니다. 自由黨에서는 여러분들이 共和黨을 다시 組織한다 黨을 再建을 한다 또 或은 郭尙勳氏가 議長이 되면 좋지 못하다 民主黨 가운데서 어떤분이 議長이 되어야 되겠다 이와같이 해서 自由黨殘黨이 아직도 우리 民主黨의 分裂을 圖謀하고 또 同時에 共和黨으로서 다시 復舊 한다 이러한 印象을 國民에게 준것은 事實입니다.

自由黨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正副統領 選舉에 있어서 直接 이것을 指揮하고 責任을 지고 不法選舉를 敢行한 知事에 대해서 農科 大學學徒들이 「보모」를 하고 官舎에 갔을때에 다시는 選舉에 나오지 않겠다! 이러하던 분들이 어제는 다시 各坊長에 대해서 돈 二千圓씩 주어가지고 三·一五選舉때에 너희들 手苦 많이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을 助長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가지고 이분은 다시 知事官舎를 떠나서 春川市內에 繁華한곳에 집을 짓고서... 집을 사고서 거기에서 지금 出馬를 準備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하여 江原道에서는 全部가 다시 自由黨이 다시 돌아왔고 또 政府는 다시 維持된다! 이러한 狀態에 있습니다. 내 時間이 없어서 돌아왔지만 果然 坊長한데 二千圓씩 준다고 하더라도 春川만 하더라도 四·五百萬

圓의 돈이 나와! 이돈이 果然 어디에서 나왔느냐? 自由黨에서 나온 돈이냐? 市廳公費에서 나온 돈이냐? 或은 退官한 마당에 있어서 國費 或은 道費를 利用해서 한 돈이냐? 내 이것을 追窮하고 있습니다. 마는 내 그 것은 後에 報告하기로 하고 이와같이 되어있는 이 마당에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江原道는 人心이 穩和 하기때문에 與黨의 色彩가 많았습니다. 그러하기때문에 우리 自由黨天下에는 무더기票의 第一 中心地입니다. 거기에서도 李在鶴氏로 말한것같은데 江原道의 多數한 自由黨國會議員中心으로서 或은 國會副議長을 지냈고 또한 오늘날 까지 五·二十選 舉 五·二選舉 三·一五選舉를 통해서 第一 不法 換票 暴行을 敢行한것은 江原道가 그 第一 으뜸 가는것을 스스로 自由하는 바입니다. 그러던 여기서 나온 李在鶴 副議長을 갖다가 여러분께서 自己 스스로 謹慎해가지고 謹愼을 했는지 或은 革命勢力이 무서웠는지 怒濤와같은 百姓의 소리가 무서웠는지 여하튼 辭表를 내었을것같은데 無條件 받아야 됩니다. 그러 함에도 不拘하고 여러분이 人事의 문제 에 대해서는 表決을 해야 됩니다. 不拘하고 여러분 少數... 少數 收拾對策委員會가 自己權限을 離脫해 가지고서 重大한 問題를 갖다 가서 自己를 끼리 協商을 해가지고서 滿場一致로 둘러주었다. 그러가지고 運營委員會에 걸 어가지고 運營委員會에서 滿場一致로 이것을 通過시켜가지고서 마침 바깥에 있는 青年學生 國民이 볼때에는 이 색은 國會가 또다시

與野協商을 通해 가지고서 國民의 피를 無效化하고 自由黨 政權을 延長 하지않느냐 하는 그런 氣分을 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 本人의 말씀을 드릴것같은데 이번 四·二六革命은 단순히 三·一五選舉는 不法이니 이것을 取消하고 다시 함으로써 이나라 民主主義를 찾자 이것이 하나 目的이고 들켜로서는 李承晚 政權은 물러가라 下野해라 이것이 目的입니다. 오늘날 學生들은 內閣責任制를 하라는 반도 한바가 없고 또한 이나라 政治를 어떻게 收拾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國會議員과 政治家에 맡길뿐이지 學生들이 「랏지」 하지 않았읍니다.

그러 함에도 不拘하고 四月十九日날 愴慌한 李起鵬議長이... 李起鵬氏가 自己 政權을 延長 하기위해서 급작히 內閣責任制를 「애드빌 문」으로 내세워가지고서 國會議員 一部를 誘惑하고 그것을 通해서 形式的으로는 政權을 갖다가 내버렸지마는 實力으로서 內閣責任制를 通해서 自己의 政權을 延長 하자 하는 이런 陰謀라는것은 明白 하지않습니까? 收拾對策委員會가 어떻게 이문제에 대해서 呼應 합니까? 都大體 內閣責任制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自由黨의 「스토강」이요 民主黨의 「스토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內閣責任制 할려면 마땅히 國會가 다 辭退를 해가지고 나가서 國民의 主權者에 다시 우리 民主黨은 內閣責任制를 하겠다 하는것을 五·二選

憲當時에 「스스로 강」을 가지고 나왔으니 까 당연 히 우리는 內閣責任制 改憲資格이 있습니다 그러나 自由黨 여러분은 솔직히 말씀드리서 五·二選舉當時에 李承晚大統領執權下에 警察의 힘으로써 大統領責任制를承認한다는條件下에 여러분이 當選된 이마 당에 있어서 여러분이 主權者의 意見을 다시 물어보지도 않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여러분이 延命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革命勢力에 阿附해가지고 그밖은 政治力을 維持하기위해서 內閣責任制 하겠다는것은 여러분 이 이번 政治의常道에 違反되는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아무리 必要하다 할지라도 우리 收拾對策委 員會에서라도 憲政의常道를 無視하고 自由黨 國會議員 여러분이 國民들한테서 나올때에는 大統領：李承晚大統領 責任制를 主張한 여러분 들이 어떻게 지금 와실았은 內閣責任制를 하 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아직까지 良心이 있을것 같으면 여러 個人을 버리고서 眞正으로 할것 같으면 憲政의 常道를 찾아야 될것입니다

本人의 意見을 다시 말씀 드릴것 같으면 李承晚 政權이 下野했을것 같으면 第二黨인 民主黨이 당연히 責任을 지고서 過渡內閣을 組織해가지 고서 이 國會議員이 불러가지고 여러분이 故 擲에 돌아가서 有權者國民에게 다시 內閣責任 制를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아가지고 나와 서만 改憲資格이 있는것입니다

그러함에도 不拘하고 여러분이 自由黨 李在鶴 氏를 中心해가지고 여러분이 그밖은 政治力을

다시 活用해가지고서 여기서 協商을 해가지고 憲法을 改正해가지고 다시 國會를 構成해가지 고 거기서 間接選舉를 하겠다 그러한 마당에 있어서 一部가 될 문제에 대해서는 本個人으로 서는 反對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든지 이緊急狀態를 胃免하기위해서 여러분이 하신것 이니까 與野에서 하신것이니까 그문제에 대해 서는 나는 反對하지않습니다

그러나 實質問題에 있어서 李副議長處遇問題에 대해서는 人事問題에 한사람이라도 反對가 있 을것 같으면 滿場一致로 안됩니다 投票해야됩니다 또 國民이 불때에는 그 가운 데 몇몇분은 反對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이것 을 알아야 될것이 아닙니까?

그러함에도 不拘하고 이것을 「異議없소」 「異議 없소」 해서 滿場一致로해서 한다고 할것 같으면 우리 國會바깥에있는 國民은 이것을 容恕하지 않을것입니다

都賀金으로 다攻擊을 받을것입니다 그러하기때 문에 本議員이 말씀드리신것은 結論적으로 말 씀드릴것 같으면 이 收拾對策委員會 或은 運營 委員會에서는 이 非常事態에 있어서 좀더 慎重히 公平히 嚴重히 해서 밖에있는 革命勢力 에 報答하는 그러한 精神을가지고 해야만 우 리 國會議員은 納得할수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다 今後 政局收拾에對한 問題에 對해서는 여러분 께서는 先聲 여러분께서 잘아시겠지만 좀더 外面에있는 革命勢力이 아직남아있고 우리들 監 視하고 우리들 원운으로 보고있다고 하는 이

環境을 잘보시고서 議員의權威를 尊重하고 우 리의 政治生命을 延長하기위해서 모든것을 慎重히 또 一般國民 國會議員들한테도 좀 말씀 을 잘 들어주어가지고 해주시기를 付託하는바 임니다

以上 議事進行으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議長)하는이 있음)

○議長(郭尙勳) 가만히 계시요 지금發言에 規 則으로 曹議員：曹泳珪議員의 發言請求가 있 고요 또 李載濬議員이 이제 桂旻淳議員의 對 策委員會에 대한 發言이 있었는데 기기에 答 辯을 하실 모양인데 曹議員! 李載濬議員께 發言먼저 드릴까요?

○曹泳珪議員(의석에서) 먼저하겠어요 ○議長(郭尙勳) 그러면 먼저하세요 順序에 따 라서 曹泳珪議員 먼저하세요 ○曹泳珪議員 規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議長(郭尙勳)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場內騷然)

議長! 場內를 整頓해주시기를 바랍니다 精 로 아까 劉沃帖議員의 發言에 대해서 그 精 神을 저도 贊同합니다 劉議員의 얘기외같이 만약에 救命運動을 하기위해서 莫大한 金錢을 쓰는 그와같은 事實이 있다고 할것 같으면 이 것은 四代國會가 幕을 내리는 이순간에 그와 같은 汚名을 끼치지 않을줄로 저는 確信하고 있습니다

또한 桂琿淳議員의 이 壇上에서 內閣責任制改
憲은 우리의 責任이 아니다 하는동 任務가
아니다 하는동 하는 말씀은 國會에서 再三決
議에대한 決議의 反抗이요 이것은 國會議決을
無視하는 發言이라고 그래서 桂琿淳議員께서는
이점을 是正해주시기를 要求합니다
그다음에 時局對策委員會가 지난번 여당사람에
대해서 한 演 說 목어가지고 이자리에 내놓은말
이 있습니다

그것은 本議員이 그날도 規則으로다가 發言을
할려고 했읍니다마는 여러同志의 抑壓에 의해서
發言을 못했읍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所
信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黨에 所屬해가지
고 제신분이 이자리에 올라오셔서 發言을 하
셨음에 저는 宜當 그 發言에 대해서 追從해
야할 사람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議員總會에서 決議한 事項도 아
니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曹泳珪라는 個人으로써 國
會議員의 資格으로써 여기서 規則으로다가 國
會法에 依據한 規則으로다가 發言을 드리겠읍
니다

제所信은 政治的인 問題로 한다 하더라도 時
局對策委員會가 여당名에대한 辭退勸告案을 이
壇上에 上程한것은 憲法이었다 저는 그렇게 분
명히 말씀드립니다
法的으로 따져서 憲法일문만 아니라 政治的인問題
로 解釋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날 緊迫感을
느꼈다 設使 그렇게 假定한다 치더라도 오늘
날에 거룩한 學生의 피가 大韓民國 大極族을 위

두르고 다녔으며 또한 大韓民國의 愛國歌를
부른 그네들이올시다
절대로 이피가 共產主義者를 위함도 아니요 어
는 獨裁者를 위하는 피도 아니라고 나는 그
생각하고 그네들의 眞誠한 피흘린 그精神
은 大韓民國의 民主主義를 蘇生시켜 달라는
그 의침으로 저는 確信하고 있는것이 올시다
그러므로해서 우리 國會는 반드시 大韓民國의
憲法아래 大韓民國의 憲法을 根本的으로 踐踏
하지않고 이憲法基礎아래 이 國會아래 이 모
든 憲法과 一般法的秩序를 維持해가면서 우리
들은 一大 改革을 해야한다는 그런것으로 저
는 解釋하고 있습니다
時局收拾對策委員會가 벌써 議員의 辭退勸告動
議를 낼수있는 國會의 議決을 받지않았다 그
것입니다

왜냐? 政治問題에 있어가지고는 時局對策委員會
는 「몇귀」하지않는다는것을 우리가 議決한것입
니다
그러기때문에 이것은 若干의 脫線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論評합니다
그다음에 議員에 대해서 懲戒勸諭를 國會法에
依해서 정당히 내야될것이올시다 그렇지않고
한쪽 목어서 아무개로한다 우리가 오늘 이現
象만 생각할것이 아니라 우리는 一個月後에 우
리는 다 나갈 사람이올시다

새로운 國會가 열렸을때 前例를 憑藉해가지고
多數黨사람들이 小數黨을 逐出하기위해서 個人
의 이름을 내걸고 辭退勸告案을 내놓으면 어
떨까 하는것이 疑懼心이올시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있는 이國會法에 依해서
우리는... 이 國會法에 엄연히 있습니다
人事問題表決에 있어서 五十三條에 이것은 無
記名投票로 表決하기로 되어있습니다 傍聽席에
계시는분이 저의 이말이 비위에 안 맞으실지 모
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메모」를 하면 氣分을가지고 이
國事를 다스린다 한것같은데 이것은 大韓民國
의 憲法을 大韓民國의 모든 法通을 無視하는
그런 混亂狀態를 大韓民國의 國民全體는 願하
지않고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때문
에 이자리에서 所信을 말씀드리는것이올시다
議員의 懲戒는 九十六條입니다 國會法: 「國
會에서 懲戒事犯이 있을때에는 議長은 이것을
懲戒委員會에 부쳐 審査報告케한後 國會의 議決
로서宣告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萬若에 그대에 李在鶴副議長이 議長을
代理했기때문에 李在鶴副議長이 議長의 資格으
로서 이와같은 이와같은 사람은 大韓民國의 國
會를 冒濫했다 : 여기 있습니다
條項에 懲戒事項에 이것이 있습니다 九十九條
二項에 國會威信을 汚損하는 현저한 非行이 있
을때에 : 여기에 이어뒤사람은 該當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民主主義國家의 民主主義의 基本權利인 國
民의 投票權을 踐踏하는데에 補助한者 또는 저
기에 積極指揮한者 이렇게 될때에는 이것은 제
가 말씀드리는 國會法 九十二條 第二項에 適用이
되는것이올시다

또는 議員이 十人以上의 勳議로서 懲戒資格에 廻付할수있읍니다 이와같은 法的인 모든 節次를 우리는 밟지 못했다는 것이 甚히 遺憾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날의 모든 聚團氣 「테모」隊의 威壓에 依해서 萬不得已했다고 諒解를 하고 오늘에 있어서 이것을 한몫 넘겨서 한다는 것이 이것은 더 한時間이 지나간 이時間에 우리는 그와같은 態度를 取할것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또 自由黨에 제시는 여러 議員同志 여러분께서도 이 여담사람에 對한 正當한 判斷을 가지고 제실출로 저는 믿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表決은 반드시 正當한 方向으로 決定될출로 믿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大韓民國의 憲法과 우리 國會議員은 國會議法의 法通과 合法的인 節次에 依해서 모든것이 進行이 왜야할출로 알고 個人 個人의 表決을 그렇게 疑心하지고 念慮하실 必要는 없다하는 저의 意見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規則으로 말씀드리고 내려잡니다

○議長(郭尙勳) 다음은 李載燾議員... ○李載燾議員 이제 덧붙여서 말씀이 계셨고 또 그분들이 말씀하신것은 그분들만의 局限된 意見이 아니고 元來의 여러 議員들께서도 이 며칠동안 그러한 意見을 私적으로 말씀하시는것을 들었기때문에 時局對策委員會로서 不得已 여기 한말씀 昭明을 하지않을수가 없는것입니다 아시다시피 四月二十六日에 「緊迫한 事態에서 不過 二·三「메타」 밖에 數많은 示威群衆이 國會를 包圍하고 國會의 새로운 決議를 促求

하는 그마당에있어서 卽刻의으로 또 充分히 그 示威하는 大衆의 要求를 들을수있는 國會의 措置를 正常的인 方法과 手續를 通해서는 解決할수가 없었던것 우리는 이제 다 같이 記憶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對策委員會로서는 이제 曹泳桂議員이나 桂珽淳議員께서 말씀한바와같이 政治的 문제에 對策委員會로서 關與하지않는 그權限의 制限을 밟았기때문에 모든 문제를 緊迫한 重要한 政治的 문제를 國會의 다른 機構를 通해서 解決해달라는 要請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國會가 三·一五 正副統領選舉를 無効로하고 卽時 再選舉를 實施할것 또 이國會에서 內閣責任制改憲을 하고 卽時 解散해서 새로운 總選舉를 實施할것 그러한것을 與野七十名의 捺印을 받아서 그捺印의 曼契머리에 署名한 李哲承議員으로 하여금 本會議에 議案으로서 上程하게 했던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運營委員會에 이案이 廻付되니 運營委員會로서는 이와같이 重大한 案件이요 國會의 아니 大韓民國 樹立以來에 前例가없는 案件을 議員의 提案으로서 上程하는것보담은 對策委員會라고 하는대의 議案으로서 上程시키 는것이 좋겠다고하는 意見을 委員會에 通告해서 提案者인 李哲承議員과 合意한 結果 그렇게 하자 그래서 여기에 上程되었던것입니다 그節次에대한 異議가 계셨다면 그때에 말씀을 해서 올았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또한 가지 이 議員辭退에관한 問題도 거의 同一한 環境下에서 同一한 條件下에 取扱되었읍니다 이게

지금 本會議에 議案으로서 上程한 瞬間이라고 그러면 그러한 말씀을 하셔서 다 제대로 法대로 處理하겠지만 本會議가 何等的 異議없이 거의 滿場一致로 處理해놓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다고 하는것은 앞날을爲해서의 參考로서 는 지금히 意義가 있읍니다마는 去者加鞭해감 이없지않읍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해야할일은 이제도 이 瞬間에도 不法과 不正을 是正하고 獨裁를 擧하는 數 많은 群衆이 이議事堂 「메타」뒤에서 우리를 包圍하고 우리에게 革新과 改革을 要求하는 이러한 環境에 있다는 이러한 精神을 우리가 가지고 해야 할것입니다

비록 數 많은 群衆은 물러갔다고 하더라도 그네들의 耳目과 그네들의 主唱과 그네들의 關心은 이 國會 議事堂 「메타」뒤에 의연히있 다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할것입니다 그러한 생각만이 抗爭을 主動한 青年과 學生들의 精神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證左가 될것입니다

示威는 물러갔지만 示威의 精神은 아직도 우리를 채적질하고 우리를 監視하고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할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四月二十七日 이 示威群衆의 要求條件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스스로 가 거기에 副應해서 그네들의 要求를 文書化 해서 決議化해서 接受했을적에 이거면 좋다고 萬歲를 부르고 拍手를 치고 그렇게 해서 그네들이 納得해준것입니다

지금 示威群衆이 물러갔다고 해서 여기서 아무도 그보다 더한것을 要求할수도없고 혹은 덜한것을 要求할수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納得된것이요 오직 그 方向으로서 우리가 解決하려고 하는 努力만이 남아있어요 內閣을 選舉通해서 와서 組織하라고 하고 또 이 자리에서 臨時로 內閣을 組織하라고 하는 委任狀을 받았거든 내보시요!

여기서 그러한 얘기를 지금 할때가 아닙니까 群衆이 물러갔다고해서 여기에서 崔仁圭의 辭任書에 네사람의 否票가 던져졌습니까

大愾大悲해서 同情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不正과 不法의 同調者로서 차마 그사람에게만 責任을 넘길수 없다고 하는것입니까?

다시 물러와야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한 짓을 우리는 다해서는 안된다고 이렇게 생각 하는것입니다

연제나 물러갔지만 그내들의 監視下와 그네들의 主唱下와 至近距離에서 우리는 그네들의 欲求를 여기서 過渡的이나마 完遂해주고 나갈 事務的인 責任을 우리가 지고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崔仁圭議員의 辭表에 否字를 던질 사람이 있을수없고 示威群衆의 諒解된 事項 以上の것을 여기서 要求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의 任期는 우리가 물러갈 날은 現在 두 달이나 한달반이 남았습니까마는 우리의 할일은 大衆앞에 誓約 되고 盟誓 된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다섯 사람의 辭表를 다시 受理할 節次가 남았습니다 曹泳廷議員의 規則解釋이 옳다고 봅니다 앞서 그 緊迫한 事態下에 本會議가 一括해서 表決한것을 그것이 手續上 옳다고 보는것이 아닙니다

또 國會의 어떤 委員會나 國會自體가 議員에게 辭表를 要求할수도 없습니다 緊迫한 事態 그것은 벌써 法律이나 憲法的 秩序를 따라가지고 解決할수 없는 興奮된 狀態요 격란한 狀態이기때문에 四年의 任期를 保障 받은 大統領보고도 下野하라 우리는 한것입니다 아무것도 그것을 잘못했고 그러고 後悔하는 사람 없습니까 하물며 議員에게 下野하라는 勸告를 한것이 잘못 되었다고 아무도 생각할수 없는 것입니다 手續만 남았습니까 이것이 우리는 冷靜에 돌아오고 事態가 이 段階에 되었다고 그러면 모를지기 國會法에 의한 節次를 여기에 適用해서 解決次 表決하는것은 마땅할것입니다

다만 그랬다고 하더라도 거의 絕對多數로 그 辭任을 要求한 이 國會가 여기에 그네들을 살리기 위한 이러한 票가 여기 던져지리라고는 생각 할수없습니다 왜? 群衆은 監視하고있고 群衆앞에 우리는 約束했기때문에 그러한것을 疑心할수 없습니까 할러거든 해요 다시 물려옵니다 以上 다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議長!) 하는이 있음) ○議長(郭尙勳) 李哲承議員 發言要求가 있습니다 ○李哲承議員 될수록이면 發言을 안할려고 慎重을 기할 態度를 가지고 牽制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부득이 말씀하려고 올라왔습니다

○李哲承議員의 義舉는 분명히 우리나라에 革命을 일으켜가지고 第二共和國의 創設에 대한 계기가 된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四

一九革命을 革命的 主流勢力이나 우리 政治하는 사람들이 비상한 努力으로서 方向을 轉換시켜가지고 고요한 革命 合法的이고 平和的인 革命으로 이끌고나서 그 傳統을 國內外에 널리 歷史적으로 알리기 위한 비상한 努力이 있었다는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것입니다

그대로 革命을 主流을 그대로 돌것같은 모든 機關은 모든 權力은 일단 中止해서 철저한 革命的 作業이 實行이 되어야한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否認할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一縷의 希望과 싸수가 있기때문에 고요하고 平和的이고 合法的인 革命으로 마칠려고 하기때문에 오로지 등불처럼 비치고 있는 이 現國會를 中心으로 해가지고 이 眞空狀態를 메우고 모든 節次를 밟는것이 그 革命的 根本 目標에 到達하는捷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때문에 時局對策委員이나 여러분들이 참 애를쓴것으로 저는 믿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여의도議員의 辭意를 가지고 그 基準을 잡을때에 實質的인 面에 있어서는 여러가지의 議論의 餘地가 있는 것입니다 基準을 잡는데에 實質的으로 勸告辭職을 決議한 當事者보다 그외에 國會안이나 國會밖

에 그보다 몇十倍 더 惡質的인 行爲를 한 사람이 없지않아 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李博士하고 李起鵬氏의 한이 政權의 獨裁勢力에 쫓지만 불과 둘 뿐이었다면이 지

(「動議해오」하는이 있음)

動議합니다

○議長(郭尙勳)

지금 李哲承議員이 國會內에

收拾野黨委員會에서 發言해가지고 發言을 해서

院內에서 國會議員 여덟 사람에게 限해서 그 議

員職을 물러가달라고 하는것은 國會에서 滿場

一致로 決定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要는 그

어떤 사람 議員에게 國會 意思로서 國會議員

職을 스스로 물러나주시요 하는 이것을 要

求했던 것입니다 實上으로는 그 境遇에 마지

고 오면 그手續이 잘되었거나 못되었거나

國會가 일단 그렇게 決定되었다고하면 그本

人들로부터 辭表가 提出되면 그것으로서 受理

할것입니다

그러나 벌써 前例로 한사람 議員에게 辭表를

냈는데 國會로서 投票에 옮겼던 것입니다 그

렇기 때문에 이 運營委員會에서도 오늘 아침

에 여러가지로 말쑥이 되다가 이것은 아무리

그렇다손치더라도 人事에 關한 問題이고 國會

議員職을 떠나는 重大한 問題인 까닭으로 우

선 急한대로 刑事問題에 걸려 가지고 問題가

되어있는 崔仁圭議員 한사람에게 限해서 오늘

作定하고 다음은 나머지 사람은 다시 한번 討

議를 해보자 이런 얘기 올시다 그래서 우리

國會 運營上 前例에 의지해서 運營委員會에서

모든것을 作定해서내면 議長은 그 意思를 尊

重해서 本會議에서 議事를 進行해은것이 前例

입니다

그러면 이 問題도 지금 李哲承議員이 對策委

員會에서 指名한... 지금 일곱 사람이 남았음

니까?

(「다섯이요」하는이 있음)

다섯 남았습니까?

實質로 이 다섯 사람에게 限해서 表決로 하는

지 어떻게 해서 오늘로 結末은 내자는 動議

이지요? 이런 動議가 들어 왔습니까

아무리 運營委員會에서 作定이 되었다 손치더

라도 本會議에와서 여러분의 意思로서 이것이

다시 覆覆될수도 있고 또한 저저 할수도 있

는까닭에 이것을 動議로 取扱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動議는 成立된것입니다

여기에 對해서 또 무슨 異見이 있으면 말씀

해주세요 異議 없으면 動議집에 내가 물겠음

니다

李哲承議員 動議內容을 한번 더 자세히 說明

해 주세요 다섯사람을 一括宣布합니까?

○李哲承議員(의석에서) 오늘중에 지금 宣布해

달라는것이예요 議長이...:

○議長(郭尙勳) 議長이 그냥 宣布하라고요?

表決하지 말고...:

○李哲承議員(의석에서) 異議를 물으시고 議長

이 宣布해 달라는 것이예요

○議長(郭尙勳) 그러면 動議의內容은 議長이 이

다섯사람에 대해서 辭表受授하는데 異議없느냐

물어가지고 異議가 있으면 表決하지안정 異議

가 없다고하면 그대로 除籍되는것으로 宣布해

달라는 動議입니다 잘 알았습니까? 그러면 문

졌습니까

李哲承議員 動議에있어가지고 異議...:

(「十請이있어야 합니다」하는이 있음)

이 動議가 十請이 있어야합니까? 이 動議는 三

請이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李哲承議員의 動

議에 異議가있는 사람이면 말씀하세요 異議없

습니까?

(「異議있소」하는이 있음)

그러면 異議있으면...:

(「異議 있어요」하는이 있음)

○丁有祥議員 異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國會法에: 또한 그 精神으로보아서도 一括에

서 表決한 性質이 아니되고 既히 議事日程 第

三項에 또한 崔仁圭議員한사람을 個別로 지금

表決유한것입니다 無記名投票로다가 그렇게 한

마음 이것은 個別로 또한 辭表受授하는 意思를

決定하도록 既히 이렇게 態度를 國會가 決定

해서 지금 그段階에 들어간것입니다 그런만큼

이것을 一括해서 그냥 여기저한다는것은 도저

히 國會法精神上도 안되는 것이고 또한 앞날

에 우리 各自議員의 身分을 保障하는데 있어

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해서 나는

異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改

議를 하겠습니다 個別로 表決하기로...:

○議長(郭尙勳) 이 動議는 一括 議長이 宣布를

해 달라는것이고 改議는 前과 마찬가지로 個

別投票를해서 作定하자는것입니다 이 改議에 再

請있습니까

(「再請이요」하는이 있음)

三請 있어요?

(「三請이요」하는이 있음)

그러면 이 改議도 成立된것을 宣布합니다

말씀하세요

○尹在根議員 이辭退勸告 決議案에 대해서 政治的인 理由로 萬一 國會가 院議로 決定한 事實을 多數派議員이 次後에 政治的으로 小數派議員의 身分의 威脅에 關係되는 일이다 念慮하는는대 대해서는 저는 見解를 달리합니다. 이것은 本人이 辭表를 내지 아니함으로써 그決議에 服從하지 않을수 있는것이요 그다음에 李哲承議員이 一括辭表決하자고 勸議가 成立되었는데 이것이 否決되면 個別 表決하는 것일니다. 그럼으로써 丁奎祥議員의 改議는 成立되지 않는다고 보고있습니다.

(「홍소」 하는이 있음)

○議長(郭尙勳) 그렇습니다. 아까 내가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國會가 全般的으로 意思를 決定해 가지고 辭表를 勸告한것이 國會 全般的의 意思입니다.

그러면 辭表를내면 이것은 그냥 받아들일것 뿐입니다. 그러나 이미 한사람을 表決했습니다. 그랬으니 지금 勸議와 改議가 나와서 이 두가지 一括表決하느냐 個個의 表決하느냐 했는 데 이것은 劉沃祐議員 마찬가지로 一括表決하는것이 否決될때에는 勿論 個別表決이 되겠습니까마는 먼저 한번 여려분에 이 勸議와 改議에 대한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좋지요?

○鄭 濬議員(의석에서) 改議가 成立이 안됩니다.

○議長(郭尙勳) 改議가 나도 생각에는 成立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려분의 意思를 尊重해서...

○鄭 濬議員(의석에서) 成立이 안되는것은 안된

다고 그러셔야지...

○議長(郭尙勳) 지금 勸議집에서 主文勸議 要求가 議長이 直接 除籍된것을 宣布했다고한 이야기이었음니다. 아까는...하나 前者의 그런 前例에 依支해서 벌써 人事問題이고해서 慎重을 기하기위해서 投票한 前例가 두번이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李哲承議員이 다시 一括해서 表決하자는것입니다. 이 勸議를 다시 고친것을 여려분한테 宣布합니다 여기에 異議없습니까?

(「議長 안되요」하는이 있음)

○劉沃祐議員 그런데 지금 勸議집에서 一括해서 表決하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한 趣旨는 그것하고 다릅니다. 된고하니 이것은 表決할 性質의것이 아닙니다. 그것이에요 議長이 宣布하면 된다 그것입니다. 卽 말하자면 國會가 要求를했습니다. 滿場一致로 辭表를 내달라고 要求를 했습니다. 要求를 해서 그 要求에 의해서 本人들의 辭表가 나왔습니다. 나왔으며는 應當 國會에서 要求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接受하면... 受理하면 그만이예요. 그것을 議長이 宣布만 하면 되는것입니다.

여기서 受理與否를 우리가 表決할 性質의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李哲承議員勸議도 그런 趣旨일것입니다. 그런 趣旨라고 생각을합니다. 여기에서 表決에 부쳐서 우리가 受理與否를 決定하는것이 아니라 이것을 議長이 接受할하느냐 接受해가지고 宣布를 하는것이 옳은냐 그렇지않으며는 表決을 해가지고 受理與否를 決定을 할

것이냐하는 問題를 지금 李哲承議員은 그것을 決定해달라 하는 그런 勸議로 나는 알고있음

니다. 그래야지 여기에서 要求를 해놓고 거기 에다가 또다시 受理與否를 우리가 다시 院議로 作定한다는것은 萬若에 이것이 우리가 可決이 될때의 이야기는 우리가 괜찮지마는 否決이 될때에는 우리는 언제는 要求를해놓고 언제는 그것을 갖다가 受理를않고 이러한 矛盾이 오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受理의 與否를 우리가 決定할것이 아니라 議長이 그대로 接受를 해가지고 宣布하는것이 可하냐 否하냐 이것만 우리가 院議로서 作定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제가 조금 度에 지나친 이야기들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아침에 들어오니깐 마치 여기에 外部사람들이 빗사람이 이러한 이야기를 조금 귀에 들리우고 그래서 제가 國民에 神經이 날카로운 이마당에서 말씀을 드려서 더우기 요새 마음이 아픈 處地에있는 自由黨議員 여려분에게 참 듣기 어려운 말씀을 드린 點에對해서 大端히 未安하게 생각합니다.

○崔熙松議員 우리 國會에서는 모든것을 法에 依支해서 慎重히 해야되는데 이것이 立法府인 法과 規定을 어겨서 한다는것은 너무 政治的으로 한다는것이 非常時機에 있어서 할수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前例가 있을것을 또 惡例를 끼쳐서는 또 저지 될수 없습니다. 이제 丁奎祥議員의 改議에 對해서 贊同한 再請한 사람이을시다. 그런데 여덟 사람을 一括해서 그때 表決한것이 그렇

게 잘된 일도 아니지만 이제 그것은 지나간 일이나까 그대로 認定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지금 오는 일을 우리는 그대로 같은 方法으로 넘겨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여기에서 強調하는 것이 옳시다 거기에서 特別히 理由는 여덟사람중에 議長은... 李起鵬氏는 자신 분이 고 韓熙錫氏는 우리가 一括해서 여덟사람의 問題를 上程시키기 전에 辭表를 受理했습니다 그리고 여섯사람은 院議에 依支해서 表決을 한 다음에 辭表를 번 사람들이 옳시다 그런데 그 여섯사람중에 崔仁圭 한사람만을 오늘 우리 個別的으로 表決을 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 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 가지고 이前例가 있는 내 이것은 崔仁圭는 例外로하고 다섯 사람을 一括한다는 것은 表決도 안 되고 이제는... 勿論 처음에 여섯 사람을 一括해서 議長이 報告를 받고서 이 사람은 辭表를 受소하고 두 드렸으면 問題는 간단 해지고 있는 것이 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崔仁圭 한 사람만을 지금 表決을 個別的으로 表決을 했는 데 이제 다섯 사람을 一括로 表決한다는 것이 그것은 無致에 合當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그 냥 宣布한다는 것도 矛盾되는 일이나까 個別的으로 時間이 좀 가더라도 우리가 慎重을 期하기 위해서 人事問題이고 또는 그 다섯 사람이 罪지은 度數도 다를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사람은 얼마 票가 나와서 그만 두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票가 더 나와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個人問題에 있어서는 原則的

으로 우리는 그냥 그대로 實行하지 여기에서 政治的으로만 너무 바쁘다고 그것을 날치기로 넘겨서는 안되니까 議事進行으로 있어 가지고서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原則대로 해주시길 바래서 말씀드립니다 (「홍소」하는이 있음)

(「規則」이요「하는이 있음」)

○議長(郭尙勳) 좀 조용해주세요 이問題를 가지고 오래 얘기하실 것이 잘되었거나 못되었거나 前例를 남겼으니까 지금 나머지 다섯사람 表決에 부침시다 萬一에... 내말 좀 들어주세요 萬一에 否決되면 누가 否決시켰다는 것을 天下가 다 알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前例를 남겼고 지금 와서 만소리해도 所用 없으니까 빨리 하나 하나 投票에 들어가는데 同意해주시지요 異議 없습니까?

(「異議없소」하는이 있음)

네 그러면 지금부터 : 李哲承議員! 萬若 否決되면... 李哲承議員! 여러분 조용해주세요 이것 簡單히 處理하기 위해서는 議事를 한 사람 한사람 하는 것도 있으려니와 連記名 投票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問題가 이當事者들에게는 相當한 重大한 問題라고 해서 아마 同志들끼리는 뭐 한 것 같습니다 마는 이미 이 사람들은 이國會籍을 떠나지 않아서는 안 될... 벌써 全體國民이 벌써 注視를 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가지고서 時間을 여기서 더 끌지 마세요 오늘 여기서 處理를 마쳐야겠습니다 그러나 꼭 投票에 들어가겠습니다

입니다

(「來日 해요」하는이 있음)

(「오늘 해요」하는이 있음)

또 來日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테... (「오늘 다 해버려요」하는이 있음)

來日까지 끌고갈 것 없는 것 같은데 自由黨 이러한 諒解하시지요?

(「네」하는이 있음)

오늘 하십시오 來日까지 꼭 必要 없지요요? 그러면 그 表決 完結을 말씀하는데 連記名으로 한 까요! 한꺼번에 해버리지요... (「좋아요」하는이 있음)

(「異議없어요」하는이 있음)

네 異議 없으시면 連記名式으로 하겠습니다 勿論 여러분이 다 아시고 계시지만 하번 내가 부르겠습니다... 이러한 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連記名으로 할려고 하니까 投票用紙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 하나 單記名으로 하겠습니까 빨리 하려는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좋지요... 네 그러면 다섯분들 呼名을 하겠습니까 朴晚元 張曠根 李存華 辛道煥 孫道心 이 다섯 議員을 시다

그러면 먼저 朴晚元 議員 먼저 하겠습니까 投票에 들어갑시다 公布합니다 監票委員도 議長이 自辟할까요? 그러면 李玉重 議員 安龍大 議員 姜永薰 議員 馮熙昌 議員 이 네분 나와서 좀 수고해 주십시오... 이 記票에 있어 가지고 恒常 無効票가 많이 읍니다 勿論 이 方法에 있어 가지고 다 아실테지만 말씀드리겠는데 事務局長이 여기에 對한 만

時間이 다 되었으므로 이 다섯사람 表決 끝 날때까지 時間延長하겠읍니다

○議事局長(李鎬賑) 대단히 罪悚합니다마는 記票方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차례 投票한 中에 無効票가 적어도 五六票以上이 나왔는데요 記票方法은 議員 辭退에 贊成하지는분은 否를 지워주시기를 바랍니다

否를 지워주시고 議員辭退를 反對하지는 分은 可를 지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個中에 보려는 동그레미를 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無効가 되어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投票用紙에 記票方法을 印刷해 두

었읍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注意하여서 記票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議長(郭尙勳) 지금은 朴晚元議員에 對한 可否... 除籍에 대한 可否를 投票하겠읍니다 朴晚元議員... (下午一時 投票開始)

投票 안 하신분 投票하세요 投票 안 하신분 投票하세요 復道나 休憩室에 投票 안 하신분

계시면 빨리 오셔서 投票하세요 成員이 안되

면 안됩니다 가지지말고 休憩室이나 復道에 계신분 議事堂

으로 다 들어오세요

投票 안 하신분 없읍니까? 投票 안 하신분 없어요?

그러면 投票 안 하신분 없으면 投票函을 단

졌읍니다 「있어요」 하는이 있음

있어요? 일른 빨리 오시요 무엇을 하고 계시요 (下午一時十四分 投票完了)

인제 投票 안 하신분 없지요? 그러면 投票函을 달고 開票로 들어가겠읍니다

投票한 名牌數를 報告 드리겠읍니다 百五十六... 名牌數가 百五十六입니다

投票結果를 報告 드리겠읍니다 總投票數 百五十六 名牌數와 맞읍니다 可에 百

二十三 否에 三十一 棄權에 二 그러므로 過半 同意者인 百二十三票로... 過

半數 以上으로 朴晚元議員은 除籍된것을 이제 宣布합니다

時間이 없읍니다 復道나 休憩室에 계신 議員 들 빨리 들어오세요

그러면 다음은 張曉根議員의 投票를 始作하겠읍니다 張曉根議員이 올시다 그러면 呼名 始作하고 投票

始作합니다 復道나 休憩室에 있는분들 들어 오세요 (下午一時十五分投票開始)

復道나 休憩室에 있는 議員은 들어와서 投票 하세요

復道나 休憩室에 있는 議員들 投票하세요 投票 안 하신분

있읍니까? 일른 投票하세요 投票 다 했읍니까?

投票 안 하신분 없어요? 이제는 없읍니까? 投票函달아도 좋읍니까? 그러면 投票函을 달읍니다

(下午一時三十四分投票完了) 開票해주세요

復道나 休憩室에 있는 議員들에게 말씀 드립니다 지금 時間이 오래서 萬若 올라가시면 半數以下가 되어서는 안되겠읍니다

人員이 지금 大端히... 까막 잘못하면 半數以下로 갈 그런 憂慮가 있으니 끝까지 남아서 이

重要な 課業을 遂行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名牌數와... 投票數를 報告 드리겠읍니다 投票

數 百四十二을시다 그런데 아까는 百五十六이었는데 인제는 百四十二이

그동안 여러분이 많이 가셨읍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읍니다 이 以上 가지면

오늘 이것을 完結을 못 합니다 投票結果를 報告 드리겠읍니다 總投票數 百四十二 可에 百二十

否에 十五 無効에 三 棄權 四 그러므로 百二十票가 過半數이므로 除籍된것을

宣布하는바입니다 곧 이어서 다음은 李存華議員 投票하겠읍니다

復道나 休憩室에 있는 議員들 들어와 주세요 (下午一時三十五分投票開始)

復道나 休憩室에 계신분은 빨리 들어와서 投票 해주세요

投票 안 하신분 없읍니까? 投票函을 달아도 좋

읍니까? 「조금 기다려요」 하는이 있음

投票 안 하신분 없어요 投票 안 하신분 없어요? 投票函을 달읍니다

(下午 一時四十六分 投票完了) 그러면 開票를 始作합니다 名牌數는 百四十八이 올시다 投票 結果를 報

告드렸읍니다. 可에 百二十七 否에 十七, 無
効 하나 棄權 三

百二十七이 過半數이므로 可決 된것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곧 이어서 여러분이 조금 時間이 지
루 하더라도 이제 두분이 남았으니 이제 完
遂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시지 마시고 完遂해
주세요

다음은 辛道煥議員을 投票에 부치겠습니다

(下午一時五十分 投票開始)

投票 안하신분 없습니까? 投票 안하신분 없
어요?

投票 ouch 달어도 좋습니까?

그러면 投票ouch을 드립니다

(下午二時三分 投票完了)

名牌數가 百四十이올시다 百마흔 이올시다

投票 結果를 報告 하겠습니다

投票總數가 百四十 可에 百十七 否에 열 아
홉 無効에 하나 棄權에 셋

半數 以上이므로... 半數 以上이므로 이것은 除
籍된것을 宣布합니다

여기에 지금 여러분께 悲報 한가지를 報告 드
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막 이자리에 報告가 왔는데 嚴詳變議員
이 作故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
다시피 憲法起草委員 여러분사람中의 한 사람으
로서 晝夜 憲法起草하는데 낮밤을 가리지않고
心血을 다해서 努力하다가 어제 午後에 저의
여덟분이 모아서... 아홉분이 모아서 審議를 마
치던 날에 卒倒를 해서 顔色이蒼白하고 밤
이 흐르고 二래서 여러 同志들이 「세부란스」
病院으로 곧 移送를 했읍니다 結果 血脈이 울
라가고 大端히 重態에 있다는 悲報를 듣고 있

었읍니다. 可에 百二十七 否에 十七, 無
効 하나 棄權 三

있읍니다. 可에 百二十七 否에 十七, 無
効 하나 棄權 三

(一同 默禱)

이 悲報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할일을 마
쳐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同志의 한사람 不幸한것을 생각한대
에 마음이 아픈것입니다만 우리는 國民을代
表한 以上 할일을 안 마칠수없읍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분밖에 안 남았읍니다

다섯째로 孫道心議員을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그러면 宣布합니다

(下午二時九分 投票開始)

投票안하신분 안 계십니까? 復道나 休憩室에
계신분 投票안 하신분 계시면 풀어와 곧 投
票하세요 投票안하신분 없습니까? 그러면 ouch
을 드립니다

「있어요」하는이 있음)

있어? 그러면 잠시 기다려...

(下午二時二十四分投票完了)

인제 ouch을 드립니다 開票하겠습니다

名牌數 報告 올리겠습니다

百五十이올시다 投票結果를 報告올리겠습니다

總投票數百五十 名牌數와 같습니다 可에 百八
否에 三十二 無効에 五 棄權에 五 半數以上
으로 除籍 된것을 宣布합니다

이제 다섯議員에對한 投票는 끝났읍니다

(休會에 關한件)

(下午二時二十分)

있읍니다. 可에 百二十七 否에 十七, 無
効 하나 棄權 三

○議長(郭尙勳) 時間이 너무 많이 되어서 안
되었읍니다. 可에 百二十七 否에 十七, 無
効 하나 棄權 三

議할 일이 한두가지 있습니다

國會는 來日과 모레는 쉬어야 하겠습니다

모레는 우리 憲法起草委員들이 어느程度 整理
가 되어서 모레는 一般과 公約한 것과 마찬
가지로 公聽會를시다

이 議事堂에서 斯界에 有力한 분들을 모시고
公聽會를 열기로 했기때문에 自然的으로 會議
가 안되겠고 來日은 모레 準備와 여러가지事
情으로 因해서 또 하루 쉬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대해서 異議있습니까?

(「없소」하는이 많음)

네 그러면 이것을 可決합니다

또 그리고 하여튼 지금 嚴議員이 갑자기 作
故를 했읍니다 참 아닌게아니라 야말로 殉
職이올시다

法律審議를 하다가 現場에서 그렇게 되어서 이
야말로 참 殉職이올시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國會葬으로 지냈것이 分明
하겠지만 이 葬禮에대해서 各派代表와 運營委
員會와 한번 相議할 必要가 있지않은가 이것
을 提議하는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國會를 代表해서 議長과 各
派代表 몇분과 곧 病院에가서 問喪하는것이 옳
을줄로 알고이 두가지를 提議합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이 있음)

네 그러면 各派代表 두분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以上...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 散會하고 六日
上午 열시에 開議할것을 宣布합니다

(下午二時三十分散會)

있읍니다. 可에 百二十七 否에 十七, 無
効 하나 棄權 三